



세계육상 D-10

‘번개’ 볼트가 왔다

자메이카·호주 선수단 속속 입국
오늘부터 경산운동장서 적응훈련

오는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빛낼 지구촌의 육상 스타들이 속속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호주 선수단 선발대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입국해 대구 선수촌에 여장을 풀고 적응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유명 스타들이 차례로 대구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땅을 밟는다.

‘인간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우사인 볼트(25)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메이카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입국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남자 100m와 200m, 400m 계주를 잇달아 휩쓸고 세계기록을 5개나 쏟아낸 볼트는 대구스타디움에 깔린 몬도트랙에서 광속 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볼트는 허리와 아킬레스건 통증 탓에 “대구 세계

대회 100m에서는 세계신기록을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3관왕을 달성하면 육상사에 남을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볼트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0m와 200m에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2009년 베를린 대회 때 두 종목에서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볼트가 대구에서 새로운 기록을 작성할지 세계 육상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볼트는 17일부터 대구시내 그랜드호텔에 머물면서 경산종합운동장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카멜리타 지터(32), 엘리슨 펠릭스(26) 등 이전 세계대회 챔피언 8명이 포함된 ‘최강’ 미국 대표팀도 17~18일 차례로 입국한다.

지터는 여자 100m에서 현역 선수 중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번 베를린 대회에서 성별 논란을 겪은 여자 800m의 카스터 세메나(20)와 장애를 딛고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게 된 400m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5)를 포함한 남아공 선수단은 23일 대구 선수촌에 여장을 푼다.

대회 조직위는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는 23일 가장 많은 258명의 선수단이 한꺼번에 대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의 볼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대구행 비행기 환승을 기다리고 있다.



김선빈

돌아온 김선빈 “규정타석에 꼭 들어야죠”

골든글러브 강한 욕심

지난 7월5일 넥센과의 군산경기에서 코뼈와 잇몸뼈 골절 부상을 당했던 KIA 김선빈이 16일 엔트리에 재등장했다. 김선빈은 8월 중순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예정보다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김선빈은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아쉬움도 있고, 마음이 아팠다. 짧은 시간의 실수였다”며 “공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2군에서 두 경기에 출전했는데 타석에 바짝 서서 타격을 했다.

다.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매일 KIA의 경기를 보면서 복귀를 꿈꿔온 김선빈은 “그라운드에 돌아온 만큼 팀도 1위로 돌아가면 좋겠다”며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니 규정이석에 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선빈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71경기에서 나와 241타수 71안타 0.298 3홈런 38타점 18도루를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며 강력한 골든글러브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부상과 함께 김선빈의 기록도 정지됐다. 김선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삼성 김상수와 넥센 강정호가 유격수 자리에서 각

축을 벌였다.

눈앞에 그려왔던 골든글러브의 꿈이 멀어졌지만 아직 시즌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관건은 ‘규정이석’이다. 골든글러브후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규정이석을 채워야 한다.

김선빈은 부상전까지 298타석에 들어섰다. 규정이석(412)에는 114개가 부족하다. 한 경기에 4타석을 들어선다고 가정할 경우 김선빈이 남은 경기를 모두 뛰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김선빈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선빈의 힘겨운 도전이 전개되고 있는 올 시즌 KIA에는 부상으로 인한 ‘규정이석’ 가뭄이 들 전망이다.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KIA에서 규정이석을 채운 선수는 김상현·안치홍·이범호·이용규 단 4명에 불과하다. 이중 김상현과 이범호는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두 선수의 최종적인 규정이석 진입여부도 불확실하다.

이건열 코치는 “이용규·안치홍이 규정이석을 채웠다고는 하지만 이용규도 부상으로 3주 가량 자리를 비웠고, 안치홍도 부상으로 재할군에 다녀오기도 했다”며 “경기는 가장 많이 치렀지만 규정이석에 진입한 타자가 단 둘 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전력을 제대로 꾸러오지 못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태극전사 명단 22일 발표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 3차 아시아 지역예선에 나설 태극전사들이 오는 22일 발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월드컵 3차 예선에 나설 선수 명단을 22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애초 축구협회의 대표팀 차출규정에 따라 18일 해외와 선수들에 대한 소집 공문을 보내고 19일 전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평가전을 계기로 왼쪽 측면 공격수와 풀백은 물론 오른쪽 풀백의 백업 요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오는 20~21일 열리는 K리그 22라운드 경기까지 보고 최종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해외파보다는 국내 경기에 계속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K리그 선수를 뽑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코칭스태프의 생각”이라며 “몇몇 선수를 놓고 한 번 더 보고 결정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

9월 6~12일 평양서 열려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의 청춘거리에 있는 태권도전당에서 열린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국가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영국, 캐나다, 네덜 등 80여개 국가에서 연인원 8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서리나 31위로 ‘깁송’

남자는 조코비치 1위

테니스 세계랭킹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미국)가 테니스 세계랭킹에서 31위로 수직상승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사무국이 16일 발표한 테니스 세계랭킹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15일 끝난 로저스컵 우승 이전의 80위에서 31위로 49계단이나 올랐다.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가 1위를 지킨 가운데 베라 즈보나레바(러시아)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자신의 최고 랭킹인 2위를 되찾았다.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에서는 노박 조코비치가 1위를 지켰고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 앤디 머레이(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